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소식

인천소식

김주희
인천일보 기자

제14회 인천무용제

제14회 인천무용제 대상팀에 최공주 무용단이 선정됐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으로 대상을 탄 최공주 무용단은 오는 9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국무용제 인천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인천무용제 심사위원단은 “최공주 무용단의 〈화무십일홍〉은 무용수들의 기교가 뛰어나고 가능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라며 대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대상팀에 이어 2위에는 구보댄스컴퍼니의 〈이카루스 패러독스〉가, 3위에는 강혜은·김주성 무용단의 〈Inter……Story(Man)〉이 각각 올랐다. 제14회 인천무용제는 7개 무용단이 참가해 지난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렸다.

이근식 작가의 제7회 개인전

이근식 작가의 일곱 번째 개인전이 7월 5일부터 11일까지 인천 신세계 갤러리에서 열렸다. ‘자연의 느낌’을 주제로 한 전시에서 작가는 산과 숲, 계곡 등 풍경을 한지에 먹과 전통적인 한국화 채색 기법을 통해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작가는 단순한 자연의 풍경만을 재현해 화면 안에 옮겨놓지 않고 직접 발로 찾아가 대상에서 느낀 자연의 색깔을 단색의 톤으로 나타냈다. 특히 시선의 움직임과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을 분할해 틀 안에 재구성함으로써 자연 전체를 그대로 옮겨놓았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작가의 최신작 30여 점을 전시하였다.

극단 마임의 〈일상의 것들〉 공연

극단 마임이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수봉공원 인천문화회관에서 정기공연 〈일상의 것들〉을 무대에 올렸다. 지난 2000년 초연한 이 작품은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클라운 마임의 진수를 선보인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클라운 마임의 대부 최규호 씨를 비롯해 김찬수 송정배 이상필 최은비 문지현 박성일 김용규 등이 출연, ‘사다리 슬랩스틱’ ‘의자와 광대’ ‘꽃을 가진 소녀’ ‘공원에서’ ‘청소부’ ‘광대’ 등 이야기를 펼쳤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설춘별곡〉

인천민예총 연극위원회가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연극 〈설춘별곡〉을 무대에 올렸다. 김종태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김병균 씨가 각색과 연출을 했다.

소설 『설춘별곡』은 전방에 위치한 ‘설춘’을 배경으로 순박한 여자와 그녀 주변의 네 남자가 겪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드라마로도 제작된 바 있다.

연극은 간접 혐의를 쓴 한 여인에 대한 재판으로 시작된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녀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한 채 재판을 받는다. 설춘택은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오로지 그저, 사람의 도리를 다 해가며 살아야겠다 했던 것 뿐이다”라고 항변한다. 연극은 불행한 역사와 정치적 이념 때문에 고통받는 혈육의 정과 인간애를 보여줬다.

제8회 인천현대 도예가회전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갤러리에서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제8회 인천현대 도예가회전〉이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는 인천에서 활

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거나, 인천출신 도예가들이 참여했다. 이부웅 단국대 교수, 김영문 관동대 교수를 비롯해 회원 21명이 작품을 내놓았다.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는 이번 도예전은 기존의 작품 성향과는 달리해 현대적 미감으로 빚어낸 작품을 선보인다는 점에서 색다른 감흥을 선사했다.

물고기 형상과 동심원 문양을 조화시킨 이연숙의 〈내안의 울림〉, 화병에 아생화를 직접 그려 넣은 이진숙의 〈2005-들꽃1〉 등 총 40여 점을 전시했다. 기존의 입체작품 위주였던 이전의 〈인천현대도예전〉과는 달리 전 회원들이 부조식의 벽걸이 작품을 출품, 전시장 곳곳 흥과 유약으로 빛어진 도예작품들의 진수를 보여줬다.

경기소식

류주선
경인일보 기자

인류평화기원의 지구촌 축제 한마당

올해 경기도 최대 문화행사인 ‘2005세계평화축전’ 이하 축전이 ‘DMZ를 넘어서’라는 부제로 8월 1일 파주 임진각 옆 3만5천평 부지에 조성된 야외공원 ‘평화누리’에서 화려하게 개막했다. 9월 11일까지 임진각 일대와 도라산역, 파주 헤이리 아트밸리 등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인류평화를 기원하고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는 지구촌 축제로 진행되고 있다.

국내외 1천여 명의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축전은 주 행사장인 ‘음악의 언덕’을 중심으로 공연 100회, 전시 2회, 학술대회 5회, 놀이체험 15개 등 다양한 학술 체험 행사가 펼쳐진다. 주요 행사를 보면 50m 길이

의 동굴에 기부를 통해 촛불을 켜는 '생명촛불 퍼빌리온', 북한 어린이를 도울 수 있는 '평화 돌무지'가 기간 내내 진행된다. 기부금은 유니세프를 통해 전 세계 불우 어린이와 북한 어린이를 위해 사용된다.

매일 저녁 '음악의 언덕'에서는 분쟁지역 예술인들을 포함, 국내외 유명 공연단체들이 클래식 월드뮤직 재즈 합창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퍼포먼스, 마임 등을 펼친다. 특히 14일 광복절 전야제 행사에는 북한 윤이상 오케스트라가 출연할 예정이다.

학술행사에는 동티모르 구스마오 대통령,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 테드 터너 전 CNN회장 등 세계적 명사들이 참가한다. 9월 1일에는 한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대학생들이 평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벌이고 친구를 삼는 'KOPAIS 평화친구 만들기'가 준비돼 있다.

알렉산드린스키 극장과의 교류협약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홍사중)이 250년 전통을 갖고 있는 '푸쉬킨 러시아 국립 아카데미 드라마 극장' (통칭 알렉산드린스키 극장)과 교류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은 오는 10월 경기도 문화의전당 초청으로 방한, 수원과 서울에서 메인 레퍼토리 중 하나인 '검찰관'을 공연한다. 이 작품은 2003년 골든 소피트 최우수 작품상과 2004년 러시아 최고 명예의 황금 마스크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또 알렉산드린스키 극장의 예술감독이자 세계적 연출가인 발레리 포킨이 9월 수원을 방문, 경기도립극단의 차기 작품인 고골리의 '결혼'을 연출한다. 이어 내년에는 경기도립극단이 <알렉산드린스키 극장 개관 250주년 기념 국제페스티벌>에 초청돼 답방 형식의 공연을 갖는다.

2007년 '뮤지엄 파크 Museum Park' 조성

경기도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백남준미술관 등을 삼각 축으로 한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상갈근린공원 일대 15만4천여㎡가 빠르면 오는 2007년 문화 자연 체육이 어우러지는 '뮤지엄 파크 (Museum Park)'로 조성된다.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문화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뮤지엄 파크 조성계획(안)'을 지난달 마련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개관 운영중인 경기도박물관과 오는 2007년 상반기 문을 열 예정인 어린이박물관, 백남준미술관 등의 건립비용과는 별도로 총 160여억 원을 들여 15만4천246㎡에 운동 문화 생태학습장 등을 건립한다.

3개 미술관 박물관의 중심지에는 커뮤니티 코아 상징물이 건립되고, 뮤지엄 파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레스토랑과 카페테리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뮤지엄 파크를 걸어서 다닐 수 있는 회주로가 조성되고, 회주로 곳곳에 조각공원과 전통놀이마당, 다목적 운동시설을 통해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원소식

홍호선
경인일보 기자

영월, 한국사진 메카로 뿌리내려

영월이 한국 사진문화의 메카로 뿌리를 내렸다. 국내 최초의 공립 사진박물관인 동강사진박물관이 오는 23일 개관했다. 아울러 <동강사진축제 2005>가 이날 개막되어 동강사진박물관을 비롯한 영월학생체육관 영월군여성회관 등에서 열흘 간 펼쳐졌다.

동강사진박물관 : 지난 2001년 '동강사진마을' 선포식을 갖고 동강사진마을운영위원회(초대 운영위원장:유주영, 전 문공부장관)를 발족해 추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영월군청사 앞 500여 평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됐다. 총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진박물관은 지하에 항온 항습 장치 등 최신 시설을 갖춘 2개의 작품 수장고와 암실이 마련된 것이 특징이며 지상 1층에는 제1전시실(72.5평), 박물관, 다목적 강당, 아트샵, 중앙 홀 등으로 구성되었다. 2층에는 제2전시실(72.5평), 학예실이 배치돼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갖췄다. 또한 제1회부터 시행해온 '동강사진상' 수상작가와 '동강사진전'의 참여 작가들로부터 기증 받은 약 300여 점의 작품이 소장작품으로 확보됐다. 동강사진축제 2005 : 올해로 4회를 맞는 <동강사진축제 2005>는 사진과 대중, 지역

과 중앙, 한국과 해외를 하나로 잇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졌다. <동강사진상 수상작>전 <강원다큐멘터리사진사업 특별전> <오디오 비주얼쇼> <영월군사진사료전> <전국 초등학생 사진일기 공모전 입상작 전시회> <동강사진워크숍> <국제대학생사진캠프> 등 10여 개의 단위행사가 마련됐다. 각각 1,000만원의 창작지원금이 수여되는 동강사진상 국내작가상에는 다큐멘터리 사진가 최민식(77 부산) 씨가, 해외작가상에는 중국의 순수사진가 왕유밍(王豫明 48) 씨가 각각 수상했다. 이들의 수상작품전이 동강사진박물관 2층 제2전시실에서 열렸다. 올 사진축제의 메인 전시는 <강원다큐멘터리사진사업 특별전>이며 강원도가 3차에 걸쳐 12명의 작가를 선정, 강원도의 자연을 비롯 생활상 등을 기록한 다큐멘터리사진 120점이 동강사진박물관 1층 제1전시실에 전시된다. 전시작품들은 박물관에 영구 소장된다.

강원의魂 강원색의 색깔-힘있는 강원展 2005

미술작품으로 강원도의 정체성과 강원인의 사고, 예술적 성취를 가능해보는 전시회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춘천MBC가 창사 37주년 기념으로 지난 7월 8일부터 17일까지 국립춘천박물관 기획전시실(1,2관)에서 개최한 <힘 있는 강원전 2005>는 강원도내 문물 출항인들 중 한국화 서양화 등 회화 분야의 대표적인 작가 초대전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 째 마련된 전시회에는 초대작가 23명의 최근작 69점이 선보였다. 초대작가들은 태어난 강원도 땅을 딛고 서서 예술세계 표출하고, 더러는 고향을 떠나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미술인들이었다. 또 숨겨진 일상이 연속되는 현대사회의 내면적 고민을 우화적 표현으로 제시하는가 하면 원초적 자연, 한가로운 대자연의 정취를 만끽하며 작품세계의 밀도를 더하기도 한다. 전통회화의 맥을 잇는 작품에서부터 우리 시대인 오늘의 현상을 보여주는 작품에서 미래를 가능해 보는 실험적인 작품까지 다양한 회화의 세계를 볼 수 있었다.

지역문화정책포럼 춘천에서 열려

한국문화재단춘천지원(원장 서병문) 주최

제2회 지역문화산업정책포럼이 지난 7월 7일 춘천시 서면 현암리 (재)춘천문화산업진흥재단 아카데미에서 열렸다. '지역문화산업의 활성화와 인력양성방안'을 주제로 한 이날 포럼에서 춘천문화산업진흥재단 박흥수 총괄이사(강원정보영상진흥원장·전 EBS사장)는 "지식기반산업은 기술과 문화인력이라는 두 축이 함께 가야한다"며 "10여년 동안 애니메이션 산업을 육성해 온 춘천지역에 정부의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문화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 진재수 사무관은 "지역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화기반시설 확충보다 인력양성 방안 마련이 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개발실 송우경 박사는 "춘천의 경우 현재와 같이 애니메이션과 게임산업을 중심으로한 문화산업단지로 특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강원도사물놀이경연대회 개최

전국문화원연합회강원도지회가 주최한 <제10회 강원도사물놀이경연대회>에서 동해문화원 다디미 사물놀이패가 도지사상인 대상을 차지했다. 각 시·군 대표 15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7월 6일 정선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대회에서 금상은 원주문화원 전통민속예술단, 은상은 강릉문화원 임영사물놀이패, 속초문화원 주부풍물단이 각각 수상했다. 동상은 횡성문화원 어사매 풍물단, 인제문화원 하늘내린사물놀이패, 양구문화원 풍물패 터, 삼척문화원 너른마당풍물패, 철원문화원 우리소리풍물패에게 돌아갔다.

총칭소식

이현숙
총칭투데이기자

뮤지컬 악극 <꿈에 본 내 고향>

세대를 뛰어넘어 서민의 가슴에 살아있는 악극이 청주무대에 올려졌다. 충북예총이 주최한 뮤지컬 악극 <꿈에 본 내 고향>이 7월 13일 오후 7시30분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펼쳐졌다.

(사)연극배우협회 주관으로 선보인 이번 공연은 중년 관객들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젊

은층에게는 색다른 관객경험을 선사했다. 대사에 최대한의 감정을 불어넣는 낭만적 연기법, 노래와 춤, 막간극을 총체화 한 무대로 관객을 유혹했다.

<꿈에 본 내 고향>은 과거 여러 악극 가운데 다시 보고 싶은 악극 1위에 선정될 정도로 관객들의 눈물샘을 가장 많이 자극했던 연극이다.

박종훈 도자전

한국전통도자의 절제된 조형언어와 정신세계로 주목받고 있는 중진도예가 박종훈 씨(56, 단국대 도예학과 교수)가 청주에서 도자전을 열었다.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한국공예관 2층 전시실에서 선보인 이번 전시에서 박씨는 찻잔, 사발, 주전자, 솥대 등 전통자기 기법과 정신성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생활자기 80여 점을 출품, 숨겨진 흙의 미학을 펼쳐 보였다. 특히 이번 도자전은 지난 30여 년 간 도자회화의 독특한 경지를 이룩해 온 전통도자의 흐름과 현주소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전시로 박씨의 작품주제인 기형시리즈의 전모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였다.

당초 1일까지 전시할 예정이었으나 관람열기가 고조되어 1주일 연장전시를 가졌다.

흙이 가진 재질을 충분히 살린 이번 전시작들은 절제된 선에 의한 현대적인 기형을 강조하는 한편 금과 은의 재료를 혼합, 우아하고 은은한 도자예술의 세계를 유감 없이 표출했다.

제4회 여성미술제

미래문화의 시대는 개성과 창의성을 전제로 한 사회적 삶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삶을 옥죄던 전통적 가부장주의는 기존의 획일화된 가족 의미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유연한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런 시류에 맞춰 여성미술작가회가 <제4회 여성미술제>를 기획했다. '오늘의 여성과 가족'을 테마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라 여성과 함께 나누는 새로운 환경과 예술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시여서 주목을 끌었다.

7월 1일부터 6일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제1전시실에서 열린 이번 여성미술제는 여성의

현실과 비전을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형상화, 여성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변화를 촉진하는 모습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출품작들은 평면, 입체, 설치,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독특한 작업을 조형화 했다. 각각의 작품들은 여성의 삶과 여성 미술의 현주소를 진단했는가 하면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작가들이 이룬 회화적 성과와 자신들의 삶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흥미로웠다. 참여작가는 김기천 김양욱 김태수 임은수 장혜윤 전성숙 조미애 한수경 황신실 하은영 최재자 등 22명이다.

대구·경북소식

이경달
매일신문 기자

다큐멘터리 사진전-우토로 어머니의 노래

임재현(46) 씨의 다큐멘터리 사진전 <우토로 어머니의 노래>가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대구 봉산문화회관 3층 전시실에서 열렸다. 일본 유일의 강제징용 조선인 마을인 우토로는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버려진 이들이 살고 있는 곳. 우토로는 2차 세계대전 중 일본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1천800여 명을 강제 동원해 비행장을 건설하던 곳으로 종전 후 비행장 건설이 중단되면서 현재까지 230여 명의 조선인이 터를 잡고 살고 있다. 하지만 낫산자동차가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면서 10년 간의 법정 다툼 끝에 1998년 강제 퇴거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우토로 주민들은 강제징용 후 60여 년이나 살아 왔지만 보상은커녕 터전마저 빼앗기게 된 것. 임재현씨의 카메라를 통해 본 우토로 거리는 금세라도 무너질 듯한 판잣집에 붉은 구호가 쓸쓸하다. 임재현 씨가 우토로 소식을 처음 접한 것은 지난해 여름. 그 후 10여 차례 오가면서 사진을 찍었다. 임재현 씨는 우토로 국제대책협의회에 참가, 사진자료를 제공하고 이번 사진전의 판매 수익을 우토로 주민들에게 기증한다.

佛 아르노 도트리브 초대전

프랑스 작가 아르노 도트리브(72) 초대전이 대구미술협회 주관으로 6월 28일부터 7월

10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프랑스 국제학술원 총무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아르노 도트리브가 한국에서 갖는 첫 개인전으로 100호 이상 작품 20여 점을 선보였다. 아르노 도트리브는 20대에 로마 회화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이후 몽펠루즈 살롱제 최고상, 프랑스 예술가협회 명예훈장 등 화려한 경력을 쌓아왔으며 프랑스 예술가협회 대표, 마흐모탕 끌로드 모네 박물관장, 아카데미 보자르 학장 등을 역임했다. 복잡한 구성에 몽환적인 화면을 보여주며 그의 작품에는 어린 시절과 그 후 겪었던 여러 가지 갈등과 향수 등이 녹아 있다.

토요상설 국악한마당

대구의 전통음악과 소리를 보여줄 <토요상설 국악한마당>이 개설됐다. 대구시와 대구국악협회는 첫째 주 '전통의 소리 맥', 둘째 주 '우리의 멋과 흥', 셋째 주 '함께 하는 신명마당'이라는 주제를 정해 매월 1~3째 주 토요일 오후 7시 두류공원 관광정보센터 옆 숭대광장에서 행사를 갖는다. 올해의 경우 7월 중순부터 10월까지 <토요상설 국악한마당>을 운영하고 내년에는 연중 개최하되 하절기(4~10월)에는 오후 7시 숭대광장, 동절기(11~3월)에는 오후 5시 대구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행사를 연다. 대구시는 <토요상설 국악한마당>을 대구를 대표하는 전통음악 무대로 육성, 외국인들을 위한 관광 코스로도 활용할 방침이며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 무형문화재 등 전국에서 유명한 국악인들을 초청할 계획이다.

경남소식

강동욱
경남일보 기자

경남민속예술축제 통영 '삼현육각' 최우수 차지

제33회 경남도민속예술축제 최우수 통영시의 '삼현육각'이 차지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통영지방의 삼현육각은 이순신(李舜臣)장군 탄신제나 회갑잔치의 잔 올리는 순서에서는 '거상(擧床)'을 연주하고, 귀인행차, 부자집 상여행차, 큰 제사의 송신 등에는 '길군악'을 연주하며, 승전무의 반주

로는 '염불' '타령' '굿거리'를 검무의 반주로는 '염불타령' '자진타령'을 굿의 청신에는 '긴염불'을 연주하는 민간 제례악이다. 우수상은 산청군의 산청농악이 차지했으며, 장려상은 진주 의암별제, 남해 창선 상여놀이, 사천 초전보리타작소리, 고성 영오 길쌈놀이, 함안군 거북줄맹기기가 받았다. 개인상은 황주식(창원) 이점수(함양) 임무철(하동군) 씨가 받았다.

제6회 경남무용제 창원성산아트홀서 열려

제6회 경남무용제가 7월 15일 오후 7시부터 창원성산아트홀에서 열렸다. 이번 경남무용제는 진주 얼무용단과 거창 천일무용단 두 팀이 각축을 벌였다. 진주 얼무용단의 참가 작품인 <의암에 핀 이슬꽃>은 의암에 우뚝 선 논개의 절의를 춤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작품은 왜군의 침략으로 무참하게 무너지는 진주성과 함께 처절한 최후를 맞는 최경회 장군을 그린 제1장 '침략' '연회' '이슬꽃' '제' 등 총 4장의 구성으로 최경회 장군의 죽음과 왜군의 침략으로 피로 물든 조국산천, 그리고 수청과 절개의 갈립길에서 복수를 다짐하는 논개의 정절과 그 의미를 20여 명의 단원들이 출연해 춤사위로 표현한다. 거창 천일무용단의 참가작품인 <미녀봉의 전설>은 거창지역의 미녀봉의 전설을 춤사위로 표현했다. 미녀봉의 전설의 내용은 홀 어머니와 살고 있는 처녀가 어머니의 병을 낮게 하기 위해 험한 산 속으로 약초를 구하러 가게 되고 약초를 캐는 순간 독사에 물려 바위가 되고 만다는 내용이다.

7월 9~10일 경남문협 하계 세미나 열려

경남문협(회장 이우걸)은 지난 7월 9일~10일까지 1박 2일 동안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합천군 청소년수련관에서 경남문협 하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홍용희(경희사이버대 교수) 씨가 '일상성을 넘어서는 일상시를 위하여'라는 주제 발표를 하고 김해석 합천지부장이 '합천문학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문학 강연을 했다. 회원들의 시낭송도 마련했는데 김서인월(점등산 이야기) 이창규(도문 강에서) 송국복(아직 나는 모른다) 나순웅(안개비) 조현자

(내 안의 그대) 김경(우체국에 가면 손가락이 땀긴다) 시인이 참여했다.

이재천·최미선 작가 경남아동문학상 수상

이재천 동화작가와 최미선 동화작가가 경남아동문학회(회장 김태두)가 제정한 제16회 경남아동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제4회 남명문학특별상은 남명 초석선생의 선비정신을 기린 임신행 씨의 동시(경호강가에 앉아) 외 13편을 선정했다.

경남아동문학상 운영위원회(정확일 김현우 김태두 이한영 김재순 오하룡)는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청소년수련원에서 경남아동문학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이창규)를 열고 이재천 씨의 단편동화 <토끼인형> 외 6편, 최미선 씨 단편동화 <발자국의 비밀> 외 6편을 올해 경남아동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수상자인 이재천 작가는 남해출신으로 진주 봉래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을 하고 지금도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95년 경남문학 신인상을 수상(동화당선)하였으며, 동화집 『붕어뽕팔이와 소녀와 할아버지』 수필집 『마음의 여유』를 발간했다.

최미선 작가는 고성출신으로 경남문협, 경남아동문학회, 한국문협 회원, 고성문인협회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작품집 『물갈퀴와 아기공룡』으로 경남문협 우수작품상을 받기도 했다. 논문으로는 『카프 동화 연구』가 있다. 남명문학특별상 수상자인 임신행 작가는 제1회 새교실 대상 수상, 서울신문 신춘문에 당선, 계몽아동문학상 수상, 2천만 원고료 제1회 황금도깨비상 대상 수상 등 다양한 수상경력이 말해주듯이 작품성을 높이 인정받고 있다.

7월 16~31일 밀양 여름 공연축제

젊은 연극인들의 실험적인 작품들을 대거 만나볼 수 있는 밀양 여름공연 예술축제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 동안 밀양시 북쪽면 밀양연극촌 일대에서 마련됐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2005밀양 여름공연 예술축제의 주제는 '접촉'으로 국내 외 공식 초청작 7편과 젊은 연출가전 11편, 대학극 9편, 기획공연 5편, 연희단거리패 고정 레퍼토리 3편 등 총 35편의 작품들이

밀양연극촌 내 숲의 극장, 우리동네극장, 스튜디오극장 등 기존의 실내극장과 남천강을 배경으로 하는 500석의 강변극장에서 선보였다.

독일 헤르거 연출로 카자흐스탄 국립극단 배우 나타샤와 연희단 거리패 배우 이승현 씨가 출연하는 춤극 〈피의 결혼〉과 러시아 베르니시취 시립극단과 한국인 연출가 김원석 씨의 협력작품인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안무가 양승희 씨와 프랑스 벨기에 무용가와 협력 작품인 춤극 〈COORDINATES 2〉 등을 통해서 동서양이 어우러진 젊은 연극예술인들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었다. 올해 공식초청작 중 세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한국적 시각으로 풀어낸 두 작품 〈해랑과 달지〉와 〈로미오를 사랑한 줄리엣의 허녀〉도 재미를 한껏 더했다. 특히 〈해랑과 달지〉는 한국 마당극 운동의 창시자인 임진택이 이끄는 극단 길라잡이가 한국 마당놀이극으로 재창조해 낸 작품이고, 부산극단 가미골의 〈로미오를 사랑한 줄리엣의 허녀〉는 젊은 세대들의 감각으로 작품을 재구성했으며 올해 강변무대 전야 개막공연으로 선정됐던 작품이다. 경연제로 공연되는 젊은 연출가전의 작품 11편과 올해부터 경연제로 전환된 대학극전 9편 작품들도 눈길을 끌었다.

통영서 '2005 국제 율이상 아카데미' 열려
율이상 타계 10주기를 맞아 올해 처음으로 마련되는 '2005 국제 율이상 아카데미'가 7월 8일까지 통영에서 열렸다. '2005 국제 율이상 아카데미 with 앙상블모데른'으로 개최됐던 이번 행사는 2005 통영국제음악제 시즌 행사 일환으로 올해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타계 10주기를 맞은 율이상 선생을 기리고 현대음악 작곡가들의 음악을 이해하고 함께 연구하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콘서트 위주의 기존 행사와는 달리 세계 각국의 연주자들이 함께 모여 현대음악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자리라 더욱 눈길을 끌었다.

또한 '2005 국제 율이상 아카데미'를 기념하기 위해 창원시립교향악단이 율이상의 〈신라〉, 드보르작의 첼로협주곡, 펜데르츠키의 교향곡 5번 〈한국〉 등으로 5일 통영시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특별연주회도 마련했다.

부산소식

고기화
국제신문 기자

부산 문학캠프 프로그램 '문학이야기'

부산 문단의 여름 문학캠프 프로그램이 확정됐다. 자연과 더불어 현장에서 독자들과 함께 도란도란 '문학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문학애호가들은 이번 여름에 펼쳐지는 각종 문학캠프의 행사지 선택을 놓고 행복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부산소설가협회 : 올해로 24회를 맞는 부산 소설가협회의 여름소설학교 행선지는 일본 대마도 하카카초현 미우다 해수욕장의 휴양촌.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소설문학의 근황과 일본소설문학에 나타난 대한인식(對韓認識)'을 주제로 열린다. 천막 방갈로에서 생활하며 위기에 빠진 소설문학의 부활을 꿈꾼다.

부산시인협회 : 7월 30~31일 부산의 명산 금정산에 둘러싸인 금정산성 마을 안의 오마이랜드 수련원에서 여름시인학교를 개설한다. 주제는 '시를 찾아서, 여름을 찾아서'. 시인들은 부산을 대표하는 대자연 속에서 이 시대 '시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예정이다.

부산작가회의 : 제4회 여름문학캠프를 위해 오는 8월 20~21일 경남 통영으로 떠난다. 슬로건은 '생명의 바다, 문학과 만나다'로 잡았다. '지역과 생태'를 주제로 부산뿐 아니라 경남 울산 등의 문인들이 처음으로 자리를 같이 한다.

부산시조시인협회 : '시조 700년 역사여행'이라는 테마로 우리의 전통시조를 살리자는 뜻깊은 문학기행을 떠난다. 8월 9일 부산을 출발해 경북 영천을 거쳐 전북 부안, 익산, 군산 등지를 돈 뒤 강원도 설악산 백담사를 방문하고 11일 부산으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시조시인들과 독자들이 한데 어우러져 우리나라의 시조문학 현장을 낱알이 순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남천 강변에서 열리는 연극축제

〈제5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가 지난 7월 16일 유서 깊은 영남루를 마주하고 선 남천 강변극장에서 개막해 7월 31일까지 16일

동안 신나는 연극축제에 들어갔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접촉. 한 영화감독이 뻘뻘한(蜜) 햇빛(陽)의 고장이라고 뜻풀이를 한 그대로, 개막식이 열린 16일 오후 밀양 시가지는 별이 좋고 무더웠다. 모시옷 차림의 행사 예술감독 이운택(연출가, 국립극단 예술감독)씨는 "올해는 행사 규모가 커져 국내 연극 팀들뿐만 아니라 러시아 프랑스 벨기에 카자흐스탄 등 해외 공연예술가들이 참가하고 손속의 〈어머니〉와 강부자의 〈오구〉 등 대중성 있는 작품들도 많다"고 말했다.

올해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는 밀양 부북면 가산리 밀양연극촌 뿐만 아니라 밀양시내 남천 강변에서도 많은 공연이 열린다. 다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밀양 연극촌의 울타리를 벗어나 시가지로 축제가 진출하자 지역주민들과 전국에서 온 연극팬들은 뜨거운 호응으로 환담했다. 이번 축제는 공식 초청작 국내 3편, 해외 4편, 젊은 연출가전 11편, 대학극 9편, 기획공연 5편, 연희단거리패 고정 레파토리 3편 등 모두 35편의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특히 올해 축제에서는 국내의 연극인들이 연출, 연기, 안무 등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마련한 무대와 서양 고전작품과 한국 작품의 만남, 시와 춤 그리고 연극 등 장르를 넘나드는 실험성 있는 다양한 작품이 선보인다.

부산미술대전 수상작 소식

부산미술협회와 부산시가 공동 주최한 제31회 부산미술대전에서 김혜영(44세, 부산 북구 명진중 교사) 씨가 한국화 '추정'으로 통합대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공예부문은 '떡살문기'를 출품한 전주걸(39세, 전업작가) 씨가, 디자인부문은 'APEC 부산 개최 홍보 포스터'를 출품한 김종대(37세, 부산경상대 광고디자인과 겸임교수) 씨가 각각 차지했다. 통합대상을 받은 '추정'은 부산지역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실경산수(자연에 있는 그대로 그리는 기법)를 그린 데다 구성력과 구도력, 필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호주에서 만난 을숙도교향악단의 환경음악회
부산에서는 처음 만들어진 민간교향악단인 을숙도교향악단이 지난 7월 10일 호주 시드

니 타운홀에서 첫 번째 해외 환경음악회를 개최했다. 파이프로오르간으로 유명한 시드니 타운홀의 수석 오르가니스트 로버트 앰프트가 웅장한 '바흐'의 곡들로 연주회의 문을 열었으며, 을숙도교향악단은 비제의 '카르멘', 글링커의 '루슬란과 루드밀라', 웨버의 '오페라의 유령', 후크의 '클래식 모음곡', 호주 민요 '알칭 마틸다', 우리 민요 '밀양아리랑' 등 준비한 레퍼토리를 혼신의 힘을 다해 연주했다. 특히 관현악으로 들려주는 '밀양아리랑'과 앙코르곡 '방아타령'은 교민들에게는 향수를, 현지인들에게는 신선함을 전했다.

아시아영화아카데미(AFA) 교수진 선정

거장 허우사오시엔이 아시아영화아카데미(AFA) 초대교장으로 확정됐다. 부산국제영화제(PiFF)는 지난 7월 12일 아시아영화아카데미 교수진으로 허우사오시엔을 비롯해 태국의 논지 니미부트르, 중국의 유 리와이, 한국의 박기용 감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AFA는 올해 10주년을 맞는 부산국제영화제가 마련한 주요 기념사업의 하나로, 아시아의 유망한 영화학도 28명을 초청해 영화 제작 기법과 유명 감독들의 노하우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디자인 비엔날레 D-100일 기념행사

'삶을 비추는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개막되는 제1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D-100일을 맞아 성공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바람몰이에 나섰다. (재)광주비엔날레는 지난 7월 6일 오후 광주시 남구 백운동 프라도 호텔에서 박광태 광주시장(비엔날레 재단 명예이사장), 강정채 전남대 총장, 엄홍섭 KBC광주방송총장, 박금자 광주예총회장, 박지택 (사)광주미술협회장 등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D-100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오는 10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쌍암공원 등 광주시내 일원

에서 전시, 워크숍, 축제행사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종합축제로 치러진다.

아기사슴 프로젝트 개최

절망과 고독의 섬, 소록도(小鹿島).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한센환자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소록도가 세상과 '접속'한다. 가칭 '호남지역 사립박물관·미술관 아기사슴 추진위원회'(대표 우제길·이하 아기사슴 추진위)는 8월 5~8일, 9월 23~26일 두 차례 고흥군 소록도에서 한센환자, 주민, 미술인,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아기사슴 - 소록도와 뮤지엄 프로젝트>를 개최한다. <아기사슴 - 소록도와 뮤지엄 프로젝트>는 소외계층과의 소통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공성격의 프로젝트로, 문화관광부의 복권기금 5천만원을 지원받아 마련된다. 이 프로젝트의 타이틀인 '아기사슴'은 작은 사슴이란 뜻을 지닌 소록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천형의 땅'으로 불린 섬을 무대로 벽화 그리기, 사진전시회, 문화상품 시연, 벤치 만들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무등산 풍경소리 34번째 무대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는 종교인 모임과 무등산공유화재단,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생명나눔실천본부가 함께 뜻을 모아 열고 있는 <무등산 풍경소리 음악회>의 서른 네 번째 무대가 7월 16일 오후 7시 30분 증심사 문화광장에서 열렸다. 불우한 환경의 어린이들을 위한 이번 공연은 마당놀이 '신명'이 가족환경극 <숲속나라 꼬마삼총사>를 무대에 올려 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동물을 의인화한 <숲속나라 꼬마삼총사>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마음의 고향인 무등산을 마당극으로 풀어낸 작품. 다람쥐와 개구리, 닭 등 우리에게 친숙한 동물들이 등장해 자연에 대한 고마움을 유머러스하게 형상화해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005 씨름시화전-문학과 함께 하는 작은 잔치

옛 아리랑제과 사거리부터 동문거리 사거리까지는 시심(詩心)을 키워내는 곳이었다. 6·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전북의 문인들과 화가들의 사랑방이었던 거리. 비좁아진 골목들은 이제 남루해졌지만 신석정, 박봉우, 최진성, 김옥생, 원영애 등 세상을 떠난 문인들의 숨결까지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다. 전주문인협회(회장 정희수)가 구도심 경계를 살리기 위해 마음을 모은 <2005 씨름시화전-문학과 함께 하는 작은 잔치>가 6월 15일 오후 7시 전주시 경원동 '남영다방'에서 개막했다. 6·15 선언 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녹록한 공기와 쪽 끼친 소파, '석다방'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낡은 다방 벽에는 문인들의 시 40여 편이 내 걸렸다. 작고문인에 대한 묵념은 시혼을 불러내는 경건한 의식. 조미애, 주봉구, 김미림, 김서운, 이여산, 김용옥, 이운룡 씨의 시낭송이 이어졌다.

'전주 플러스 천 프로젝트' 발표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단장 이종민)이 '전주 플러스 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창단 1주년을 맞아 내놓은 결과물 '전주 플러스 천 프로젝트'는 전통문화의 현대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자립형 전통문화중심도시육성 지역발전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발전 전략. 과거 1천년과 미래 1천년을 상징, 천년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미래를 이어갈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만들어 나가는 프로젝트다. 이날 제시된 전통문화중심도시 3대 전략은 '문화전문인력 양성' '산업화 기반 구축' '공간구성'이다. 특히 '문화전문인력 양성' 전략은 전통문화예술 기능인 육성과 문화 촉매자 양성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전통문화를 안정적으로 재생산 할 수 있는 동력 확보 전략으로 주목을 모았다. 문화인력 재교육과 신규인력 양성 등 문화는 결국 사람이라는 공통된 의견 아래 제시된 이 전략은 10대 핵심사업 중 '시민 문화교육시스템 구축사업'과 '전통문화인력 양성사업' 등으로 구체화됐다.

‘전통문화콘텐츠 개발사업’과 ‘문화산업 R&D 센터 구축사업’ 등은 전통문화 ‘산업화 기반 구축’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체제. 전통문화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문화 복합체형 테마파크 건립’ ‘전통문화 창조도시 경관 조성사업’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등은 전주를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들고 한국적 전통생활공간을 완성하기 위한 공간구성 전략에 따른 사업으로 제안됐다. 그밖에도 산학관연의 공동 지원체제 확립을 위한 ‘전통문화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한국의 전통문화를 지속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한국 전통문화 세계 네트워크화 사업’, 한류문화의 거점도시 전주육성을 위한 ‘전주 브랜드화 사업’ 등도 제시됐다.

‘플러스 천 프로젝트’는 추진단이 실시해 온 팸투어 간담회와 사업 발굴을 위한 워크숍, 전통문화 세계화 포럼, 설명회 등을 통해 제기됐던 문제점과 사업들을 총망라한 것이다. 국가정책에 반영돼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명분과 지속발전 가능한 토대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했다.

텐트 속의 문화·자연의 숲에 산다

지난날의 추억, 지금의 삶, 앞으로의 희망. 길 위의 외로운 사람들은 저마다의 텐트를 가지고 있다. 도심 속 전시장, 텐트가 만들어 졌다. 드로잉, 조각, 사진, 설치, 퍼포먼스 등에서 자유롭게 활동해 오던 지역의 작가들이 ‘텐트 속의 문화·자연의 숲에 산다’를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열었다. 평생을 텐트와 함께 옮겨다니는 유목민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그들의 고단한 삶은 곧 문화의 이동경로가 되었다. 삶의 터전이며 생활의 기점으로 텐트를 조명한 작가들은 다닥다닥 붙어 있는 텐트로 공동체를 이루는 집단적 문화를 상징해 놓았다.

참여작가는 고보연 박승호 김기원 김삼렬 김영란 김용수 박은주 박진희 심홍재 윤여일 이일순 임승한 임택준 임현채 정하영씨 등 15명이다. 전시 두 달 전부터 꾸준한 만남을 통해 대화를 나눈 작가들은 슬레이트 지붕이나 나뭇배, 비닐, 대나무, 연등 등으로 자

신만의 텐트를 연출해냈다.

제주소식

강태유
제민일보 기자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취임

2001년 개원한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예술재단) 이사장 선출 방식이 기존의 추대방식에서 공모방식으로 전환하여 제주도내 문화예술계의 주목을 끈 가운데 첫 공모를 통해 3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병택 씨(57)가 지난 7월1일 취임했다. 예술재단은 지난 5월 이사회에서 공모하는 것으로 이사장 선출 방식을 결정, 이사장을 공모한 가운데 지난 6월21일 이사회를 열고 제3대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에 문학평론가 김병택 씨를 선출했다.

지난 5월 비공개로 진행된 예술재단 이사회는 새 이사장을 공모할 것인지, 추대할 것인지를 놓고 2시간 동안 회의를 갖은 결과 공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따라 정관 제7조에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문화예술인 중에 선임한다’는 규정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신임 이사장은 문화 예술적인 마인드를 지니면서 행정력 정책력을 겸비해 발로 뛰는 참신한 인물이어야 한다고 지적, 정관 개정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2년 동안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총괄 운영과 제주문화예술 진흥에 힘쓰게 될 김병택 신임 이사장은 78년 『現代文學』(7월호)에서 ‘시인의 현실과 자유’로 문학평론가로 등단한 이후 모두 7편의 개인평론집과 학술서 등을 집필했다.

주체적 역사 읽기의 시각 『새로 쓰는 제주사』

역사교사인 이영권 씨(40)가 중심에서 바라본 세상을 변방의 시각으로 통쾌하게 뒤집은 『새로 쓰는 제주사』를 휴머니스트에서 펴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지로 알려진 애월읍 빌레못 동굴이 국사 교과서에서 은근히 사라진 해프닝을 소개하며 시작하는 『새로 쓰는 제주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사문화에서 현대사 4·3의 진상까지 12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 담긴 12개 주제에 모두 독자들에게 중앙의 시선이

아닌 변방의 시선이라는 담론을 던지며 중국에는 국가중심의 한국사 기술까지도 통렬히 뒤집는다.

제1회 제주신화미술제

1만 8천 신이 머무는 신들의 고향, 신들의 섬 제주. 그리스 로마신화에 버금가는 신들의 이야기가 다양하게 전해져 오는 제주의 신화를 소재로 한 <제1회 제주신화미술제>가 지난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제주아트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미술제를 마련한 제주신화미술제운영위원회(위원장 김유정)는 상상력의 땅 제주에서 신화의 조형적 해석을 시도해 문화산업의 컨텐츠적인 비전과 예술가의 창작력을 고취하는데 주목하고 있다. 이외에 3일 오전 12시 한라산 백록담 정상에서 한라산 산신제(집전/진창기 한라산 지킴이 회장)와 한라산 산신을 위한 퍼포먼스(피모머/한정원), 제주의 기매(旛)전(갤러리 제주아트 야외), 신화부적 나누기 행사 등 부대행사도 다채롭게 마련, 신들의 고향에서 나라를 펼친 상상력이 다양한 색깔을 풀어냈다.

제5회 탐라전국합창제

합창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선율이 온 섬에 물결쳤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탐라전국합창축제 조직위원회·한국음악협회제주도지회가 주관하는 <제5회 탐라전국합창제>는 지난 7월 12일 제주시 탐동해변공연장에서 개막식을 열어 여름밤 더위에 지친 도민들에게 시원한 화음의 메아리를 선사했다. 탐라합창축제는 이날 개막식과 전국합창경연대회를 시작으로 15일까지 3일간 해변공연장, 서귀포시 칠십리야외공연장을 순회하며 제주 섬에 합창의 선율이 가득 메웠다. 이날 열린 전국합창경연대회에는 모두 14개 팀이 참가해 지역의 자존심을 걸고 열띤 경연을 펼쳤으며 서울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지휘 윤성보)이 ‘비바리’ ‘정과정’ 등을 불러 영예의 대상을 수상해 문화관광부장관상과 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